상추 육종산업 저변 확대

농진청, 오늘 상추 유전자원 현장평가회 개최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상추 육종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육종가와 관련 연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4일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상추 유전자원 현장 평가회를 연다.

상추는 샐러드, 쌈채, 녹즙 등으로 즐겨 먹는 배추 다음가는 경제작물로 2019년 국내 상추 재배면적은 3,629헥타르이며, 생산량은 9만5,580톤, 생산액은 2973억 원으로 잎채소 총 생산액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유전자원센터는 78개 나라에서 수집한 상추 유전자원 2,337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수요자 요구를 반영해 병에 강하거나 시장 선호도가 높은 품종, 야생종 등 다양한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현장 평가회에서는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추 유전자원 중 42개 나라에서 들여온 400여 자원을 대상으로 육종가와 관련 연구자들이 직접 육종 소재로 쓰일 자원을 선발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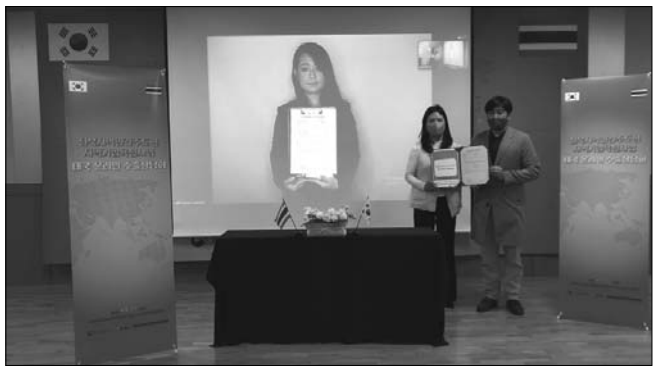
이 자리에서 양상추, 잎상추, 가시상추 등 다양한 형태의 상추를 비롯해 연녹색부터 짙은 자색 상추를 선보인다.

또한, 진통 작용을 하는 락투신(Lactucin) 성분을 함유한 상추, 무름병, 시들병에 저항성을 보이는 상추 등 품종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상추를 볼 수 있다. 특히 전남도농업기술원이 토종 상추를 활용해 육성한 숙면채 상추 '흑하랑', 노균병 판별지표로 활용하기 위해 네덜란드에서 도입돼 병 저항성 육종 소재로 활용되는 품종 등 독특한 상추도 선보일 예정이다.

농업유전자원센터 이주희 센터장은 "최근 농업유전자원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총 2337 상추 유전자원의 다양성을 함축하는 핵심 집단 조성 연구가 시작됐다"며 "앞으로도 세계 각국의 종자은행과 협력해 수요자가 원하는 유전자원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종자산업 뿐만 아니라 식품시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도내 농식품 신남방 수출시장 개척 앞장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태국 판로개척 온라인 상담회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지난 4월 27일과 29일, 2일에 걸쳐 진흥원 비즈니스센터에서 태국 11개사, 베트남 16개사 등 총 27개사의 유망 바이어를 섭외, 전북지역 민간주도형 지역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도내 농식품 기업 10개사와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회를 진행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소중한 기회를 제공했다.

전라북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前전북생물산업진흥원)이 코로나19로 해외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농식품기업의 신남방 수출시장 개척에 앞장서고 있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지난 4월 27일과 29일, 2일에 걸쳐 진흥원 비즈니스센터에서 태국 11개사, 베트남 16개사 등 총 27개사의 유망 바이어를 섭외, 전북지역 민간주도형 지역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도내 농식품 기업 10개사와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회를 진행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소중한 기회를 제공했다.

해외 바이어를 직접 만나지 못하는 온라인 상담회의 단점을 최대한 극복하기 위해 사전에 베트남 현지 온라인 쇼핑몰 쇼피(Shopee)와 베트남 한인 어플리케이션 핸디(Handy)에 상품을 입점 등록해 도내 농식품 기업들의 비대면 해외마케팅을 지원했고, 기업 홍보 자료와 샘플을 상담 전에 바이어에게 발송해 직접 맛보고 관심을 보인 바이어와 상담을 주선했다.

2개국 27개사의 유망바이어와 도내 10개사가 참여한 이번 상담회에서 총 61건의 심도있는 상담을 통해 수출상담액 417만불, 계약추진액 129만불을 기록했다. 특히 익산시 소재 두유 및 콜라겐 제품 생산업체인 '연두'는 태국의 'KCC Corporation' 社와 10만불, 정읍시 소재 스파우트 죽 제품 생산업체인 '두손푸드'는 베트남의 'V Space'社와 15만불 등 총 25만불 규모의 현장 수출 계약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더불어 진흥원은 신남방 국가 판로 확대를 위한 후속지원으로 5월중 베트남 현지 대형마트에서 전북 수출 전략 상품 공동 홍보관을 구성해 신규 바이어 발굴 및 소비자 시장테스트를 진행하고, 현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 프로그램 운영 등 도내 농식품의 해외 신시장 진입을 위한 다양한 판촉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고창 청맥의 김계환 이사는 "코로나19로 해외전시회가 취소되고 바이어와 만날 기회가 없어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상담회를 통해 우리 제품을 소개하고 현지 반응을 알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고, 향후 직접 수출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북바이오산업융합진흥원 김동수 원장은 "도내 많은 기업이 코로나19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상담회를 통해 참가 기업 모두가 새로운 수출 판로를 확보하고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진흥원은 앞으로도 도내 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ESG 경영 실천 '앞장'

전북농협, 부패방지경영시스템 도입 사전설명회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3일 ESG 경영 실천 일환으로 농축협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도입을 위한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이란 조직이 직면한 부패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절차 및 실행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부패를 예방, 탐지 대응하도록 도움을 주는 국제표준으로, 최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다.

앞서 농협은 지난 3월 중앙본부에서 개최된 제1차 윤리경영위원회를 통해 범농협 차원의 ESG 경영강화를 위한 윤리경영 확산과 청렴한 농협 구현 방안을 논의하고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 프로그램 운영 고도화 ▲예산집행 모니터링 강화 ▲함께하는 청렴 농협인 발굴·육성 등을 추진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전북농협은 우선 올해 부패방지경영시스템 도입을 위해 사업계획을 수립한 5개 농축협을 중심으로 상반기 안에 컨설팅과 인증심사 절차를 지원하고 하반기부터는 미도입 농축협을 대상으로 추가 도입에 나설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제조업 창업의 꿈을 키워드립니다'

탄소산업진흥원 메이커 문화행사 성료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컨트롤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제조업 창업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메이커 문화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지난 1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북 메이커스페이스 뚝딱365(구 일양병원 자리) 메이커 전용공간과 대강당에서 메이커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등이 몰려 있는 5월을 보다 의미 있고 특색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3D펜 활용 무드조명을 만들고, 풍선 카네이션 꽃다발 제작, 핸드메이드 비누 제작, 기혼남녀를 위한 마크라메 리어도어벨 제작 등 메이커 체험활동을 펼쳤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철저한 방역 지침 아래 교육당 2시간 이내로 진행됐다.

진흥원은 향후 뚝딱365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모든 남녀노소가 참여 가능한 메이커 문화 확산 프로그램을 실시할 방침이다.

메이커 문화행사에 참여한 최 모(전주 인후동)씨는 "아이와 함께 만들며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어 좋았고, 아이의 상상력과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강조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방윤혁 원장은 "뚝딱365는 제조업과 창업 희망자, 소상공인들의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다양한 메이커 행사와 전문 메이커 육성, 시제품 제작을 위한 전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펼쳐 대한민국 제조업 창업 전진기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늘부터 20일까지 JB안전체험 코너를 운용한다.

'심폐소생술 체험해보시겠어요?'

전북은행, 가정의 달 맞아 'JB안전체험코너' 운용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JB안전체험 코너를 운용한다.

오늘부터 20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전북은행 본점 1층 로비에서 진행되는 JB안전체험 코너에서는 임직원은 물론 은행을 찾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전북은행은 경비대 요원들을 대상으로 (사)대한안전연합 전북본부로부터 우수강사를 초빙해 사전 집체교육을 마쳤다. 또한 심폐소생술 실습용 마네킨 5 Set와 유아 및 어린이의 기도가 폐쇄되었을 때에도 조치할 수 있도록 어린이 마네킨도 준비해 누구나 갑작스러운 위험에 처했을 경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생활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관련된 배너들을 체험장에 설치해 평상 시 소홀하기 쉬운 식품안전, 교통안전, 화재예방 등 제반 생활안전문제에 대해서도 경각심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와 관련 전북은행 안전관리실에서는 친근감을 위해 여성 안내요원들을 배치했으며 체험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심폐소생술 자료를 영상도 준비했다. 또한 체험참여자 중 열성적으로 성과있게 참여한 고객들에게는 코로나19 방역마스크 및 마스크걸이, 주방세제 등도 제공한다.

김경진 부행장은 "코로나19 상황하에서도 방역대책을 세심히 강구한 가운데 이러한 체험활동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심폐소생술은 매우 간단하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소중한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관건이라며 임직원 및 고객님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LX 김정렬 사장(오른쪽)과 도로교통공단 이주민 이사장(왼쪽)은 3일 전주 LX 본사에서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 협약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 안전 위한 정부 정책사업 추진 '맞손'

LX · 도로교통공단, 상생 협력 위한 MOU 체결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이하 LX)와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이하 공단)은 3일 전주 LX 본사에서 양 기관의 전문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하고 홍보를 지원하기 위한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직원 안전을 위한 정부 정책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하고 업무 기술 공유와 함께 직원 교류를 위해 혁신역량 강화에 노력할 방침이다.

LX 김정렬 사장은 "안전한 교통환경은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되므로 기관과의 협업은 필수"라며 "양 기관이 갖는 강점을 공유하고 협력해 국민 안전을 위한 사업도 발굴하고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 이주민 이사장은 "LX가 선도하는 디지털트윈 표준모델 구축 사업을 보면서 혁신이 무엇인지 실감하게 됐다"며 "양 기관이 사업을 발굴하고 협력하여 동반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새만금개발공사, 군산 산돌학교 지원금 전달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팔문, 이하 공사)가 어린이날을 앞두고, 군산 산돌학교(교장 홍진웅) 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기부금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학습이 늘어난 상황에서 산돌학교 재학생이 원활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용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산돌학교는 전북도교육청이 지정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발달장애 학생 교육은 물론 스마트팜, 무인빨래방 운영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사회 진출을 돕고 있다.

강팔문 사장은 "우리 공사 임직원들이 산돌학교 학생들을 늘 응원하고 있음을 알리고 싶어 지원하게 됐다"며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에 정진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미래에셋상생플러스 펀드 1주년 장학금 전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지난달 30일 '미래에셋상생플러스 펀드(이하 상생플러스펀드)'의 적립기금 2,000만원을 전라북도 교육청에 전달했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는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과 서한국 전북은행장, 서유석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이사 등이 참여했다.

이번 장학금은 지난 해 전북은행이 상생플러스펀드를 출시하면서 판매액의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해 지역사회에 환원하기로 함에 따라 전북은행의 판매보수와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운용보수를 적립해 마련했으며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추천한 도내 6개 특성화고에 지원된다.

김승환 교육감은 "전달받은 기금은 조성목적에 맞게 금융인재 양성에 소중히 사용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대표은행인 전북은행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맡아달라"고 말했다.

서한국 은행장은 "지역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기업시민으로서 기본적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지속적으로 지역 청소년 지원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유석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이사는 "만족스런 투자 수익률과 함께 지역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펀드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 농 · 축협 신규직원 동시채용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지역인재 채용 확대와 우수인력 발굴을 위해 2021년 전북 지역 농·축협 신규직원 동시채용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채용접수는 3일부터 10일까지 범농협 채용홈페이지(with.nonghyup.com) 또는 잡코리아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6월 13일 인·적성 및 직무능력검사, 6월 말 면접 및 신체검사를 거쳐 7월 중순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채용에 따른 응시자격은 채용 공고일(3일) 전일 기준으로 응시자 본인·부·모 중 1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채용단위별 응시지역 내이면 가능하며 그 외 세부사항은 채용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김윤상 기자

지리산둘레길, 국가숲길 지정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조준규)은 남한 내륙에서 가장 높은 지리산을 둘러싸고 있는 지리산둘레길이 산림청 심의를 거쳐 5월 1자로 국가숲길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지리산둘레길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조성한 총 거리 289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라북도 남원시(47km), 전라남도 구례군(72km), 경상남도 함양군(24km)·산청군(69km)·하동군(77km) 등 3개도 5개시·군(20개 읍·면) 120여개 마을을 잇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숲길이다.

지리산둘레길 관리기관인 서부지방산림청과 운영기관인 사단법인 숲길은 지리산둘레길이 국가 숲길로 지정됨에 따라 홍보를 강화하고 프로그램 다양화와 동시에 장기적으로 지자체 숲길과 연계를 통해 노선을 추가하고 안내센터 정비 등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